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⑩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네르비온 강변의 거함, 죽어가던 도시를 살리다

빌바오=정상필 EU특파원

뉴욕 구겐하임 첫 해외분관
미술품 전시도 외관 만큼 파격
관람객 절반 교육프로 참가

스페인 북부의 옛 철강도시 빌바오(Bilbao)를 가로지르는 네르비온(Nervion) 강변에는 거대한 배 한 척이 정박해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빛깔은 물론 형태도 달라지는 배는 변화무쌍한 파도를 연상시킨다. 버려진 철강공장의 산업폐수로 인한 오염에 시달리던 네르비온 강은 거함(巨艦)이 일으키는 파도에 쓸려 정화됐고, 도시는 빛을 발했다. 빌바오와 네르비온을 살린 이 배의 이름은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o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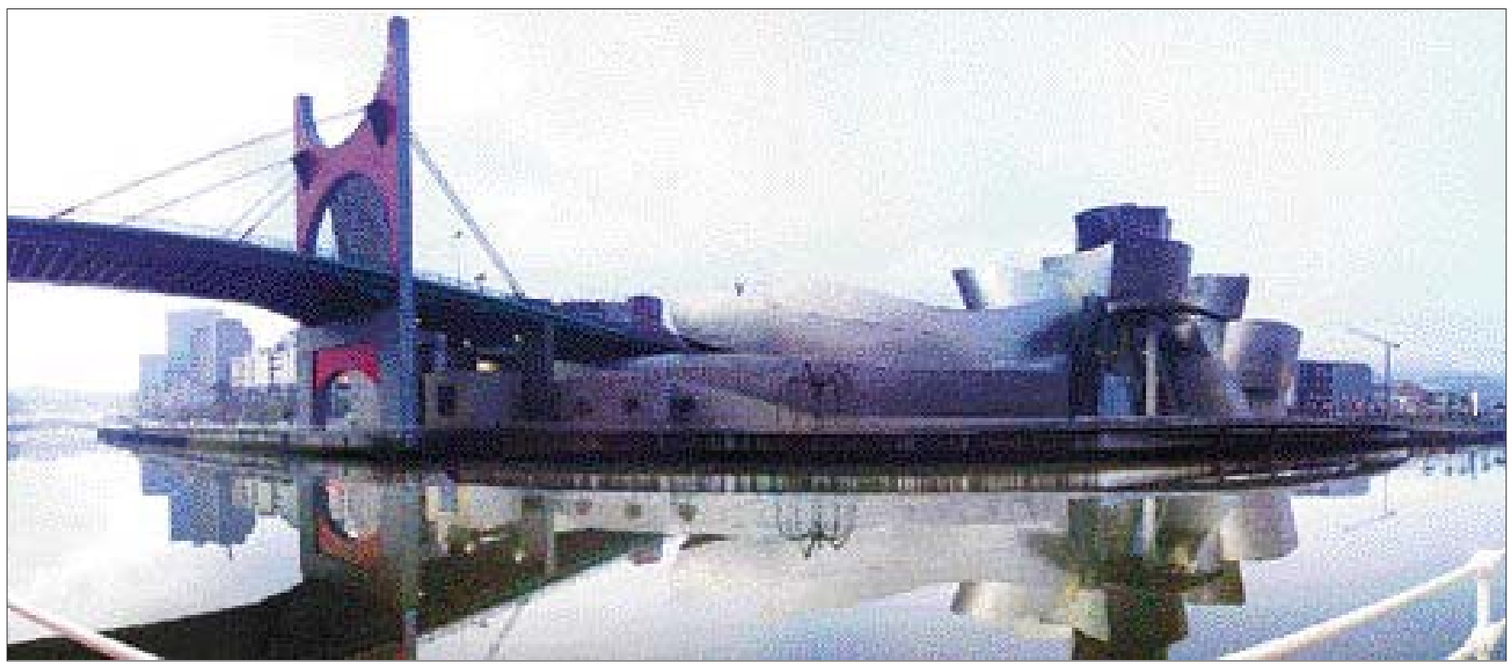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최초 해외 분관으로 1997년 10월 개관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컬렉션보다는 파격적으로 지어진 건물의 건축학적 의미나 미술관을 통해 도시 리모델링에 성공한 사례 등으로 더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매년 10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미술관 하나를 위해 스페인의 지방도시 빌바오를 찾는다는 사실은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적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그만큼 내공이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0세기 아방가르드 건축물의 대표적 아이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작품이다. 게리는 구겐하임 프로젝트가 쓰러져가는 도시 살리기의 일환이었던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술관 부지를 네르비온 강변에 정했다. 철강업으로 한때 영화를 누렸던 도시의 강변에는 버려진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강의 오염은 심각한 상태였다.

늘어가는 소장품의 전시공간 부족을 고민하던 뉴욕의 구겐하임 재단과 미술관 유치로 도시를 살리려는 바스크 지방 정부의 생각이 맞아 떨어졌다. 뉴욕 본관의 두 배에 해당하는 1만1천㎡의 전시 공간을 비롯한 전체 면적 2만4천㎡ 규모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20세기 대표적 미국 건축가 필립 존슨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 최고의 건축물"로 손색이 없다. 티타늄, 유리, 석재 판넬 등으로 자유로운 곡선을 이뤄 한 척의 배를 보는 듯하다. 네모 반듯한 사각형 건물에만 익숙한 이들에겐 그 자체로 예술품이다.

1층 전시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에 할애하는 등 미술관 내부의 공간 활용 역시 외관 만큼이나 과감하다. 1층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작품은 미국 조각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시간의 소재'. 4m 높이의 강철이 만든 '골목'은 넓어졌다 좁아지는가 하면, 갑자기 텅 빈 공간으로 관람객을 내몬다. "조각의 진화"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지 않아도 미술관의 파격과 어울리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올 초 발간된 2008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관람객 수는 95만1천명으로 미술관 개관 10주년이던 2007년의 100만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미술관 측은 지난해 11월 개관 이후 1천100만번째 관람객이 다녀가 10년간 연평균 관람객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람객의 절반 이상인 66%가 외국인으로 빌바오에서 국경까지 두 시간 거리인 프랑스 국민이 전체 외국인 관람객의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영국(9%), 독일(7%), 이탈리아·미국(각각 6%) 등이었다.



스페인 빌바오 네르비온 강변에 위치한 구겐하임 미술관.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작품인 미술관은 건축학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술관이 빌바오를 탈바꿈시킨 것을 빗대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까지 탄생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1층 전시실을 꽉 채우고 있는 미국 조각가 리처드 세라의 작품 '시간의 소재'. 파격적 외관 만큼이나 내부 활용도 과감한 것이 특징이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뉴욕 구겐하임 재단의 소장품을 순회전시하는 기능을 넘어 순수 소장품을 늘리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세기 중반에서 현재까지 작품을 중심으로 빌바오가 속한 바스크 지방 조각가 에두아르도 칠리다(Eduardo Chillida), '블루'로 대표되는 신현실주의의 프랑스 작가 이브 클라인(Yves Klein), '액션 페인팅'을 통한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 주자인 네덜란드 작가 윌럼 데 쿠닝(Willem de Kooning), '팝 아트'의 선두주자인 미국 작가 앤디 워홀(Andy Warhol) 등 전후 20세기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대표작들이 소장돼 있다. 이처럼 미술관이 소장품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것은 1만6천명이 넘는 개인 후원자와 146개 회사의 메세나 그룹이 있어 가능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역할은 단순히 관람객에게 소장품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관람객의 절반이 넘는 47만2천여명이 미술관이 진행 중인 50여개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년 대비 4% 늘어난 수치다. 미술관 측은 전체 관람객 수가 2007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단순 관람객이 아닌 교육 참가자 수의 증가로 내실을 기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낸 경제이익은 2억1천만 유로(약 3천700억원)였으며, 이 중 2천860만 유로(약 505억원)가 바스크 지방 정부로 유입됐고, 4천196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관 10년만에 경제이익 2조7천억, 4만5천명 고용

■ 구겐하임, 빌바오 어떻게 바꿨나

10여년 전인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이 개관한 이후 미술관은 항구도시 빌바오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그 과정을 살펴보면, 훌륭한 문화정책 하나가 도시 전체를 바꾼 사례로 빌바오가 빠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비스카야주(州) 주도(州都)이자 철강공업 도시로 번성하던 빌바오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활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경제 악화로 공장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철강업의 옛 영화가 남긴 것은 회색빛의 우울함과 네르비온강의 오염이었다. '버려진 도시' 빌바오는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로맨틱한 항구도시 세인트 세바스티안(Saint-Sebastien)에 관광객을 빼앗겨야 했다.

침체 일로에 있던 도시 재건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바스크 지방 정부였다.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해 도시 활성화를 꾀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를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문화를 이용해야 한다는 큰 뜻에는 모두 동의했다. '미국 문화의 침략'이라는 비판을 뒤로 한 채 바스크 지방 정부는 미술관 유치에 필요한 비용의 100%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정부의 투자액은 1억5천만 유로(약 2천600억원). 그러나 이 비용은 미술관 개관 6년 만에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정부에 따르면 구겐하임 미술관은 개관 후 10년 동안 15억7천만 유로(약 2조7천700억원)의 경제이익과 4만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어냈고 3년여 전부터는 연간 방문객 100만 시대를 열었다. 가히 '구겐하임 효과'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앞을 전동차가 지나고 있다. 빌바오 시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도시 기능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1조3천억원을 들여 미술관을 중심으로 지하철과 트램웨이를 건설했다.

또 빌바오 시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34만5천㎡ 면적에 지하철 및 트램웨이(전동차)를 건설하는데 7억3천500만 유로(약 1조3천억원)를 투자했다. 도시 전체의 풍경을 바꾼 것이다. 이같은 노력에 의해 지난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구겐하임에서 시작된 빌바오 시의 변화가 세계 최고의 도시계획으로 선정되기도 했다.